

5/2/21

설교 제목: 르우벤 시므론 레위 유다에 관한 예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9 장 1-12 절

(창 49:1)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 49:2)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창 49:3)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창 49:4)물의 꿈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도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창 49:5)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창 49:6)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도

(창 49:7)그 노염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중에서 흠으리로다

(창 49:8)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창 49:9)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 49:10)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 49:11)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창 49:12)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열 두 아들들을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 달리 열 두 아들들 각각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합니다.

거기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창 49:1)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 49:2)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 갈 것인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 예언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야곱의 열 두 아들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각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을 족장으로 한 열 두 지파의 연합체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된 열 두 지파를 구성한 야곱의 열 두 아들은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의 열 두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단지 야곱의 가족사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차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은 열 두 아들 중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아의 소생으로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입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 49:3)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창 49:4)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도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르우벤을 가리켜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럴지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인해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일이란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말합니다.

르우벤은 라헬이 죽고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거할 때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하였습니다.

르우벤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장자의 자격과 권능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를 가리켜 물의 끓음 같다고 말합니다.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물같이 불안정하다 혹은 자유 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 훈련을 통해 기질을 다듬지 않으면 르우벤과 같이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 49:5)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창 49:6)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창 49:7)그 노염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중에서 흠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애가 아주 돈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복수를 결심하고 공모를 꾸몄습니다.

세겜의 족장과 그 아들이 야곱과 아들들을 찾아와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자 이들은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세겜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그들의 성을 쳐들어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 일을 좋지 않게 보았고 불쾌히 여겼으며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창 34:30)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들은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방법도 필요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죽였으며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 다시는 죄를 짓는 일에 공모하지 못하도록 나누고 흠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흠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에 있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달랐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여러 성읍을 분배받아 흠어지게 되었고 그후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면 레위 지파는 흠어지기는 했지만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제사장이 된 것은 다음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시내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모세가 속히 돌아오지 않자 아론을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절하고 춤추며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가 분노했고 이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자들을 처단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시므온과 같이 흠어지되 제사장으로 흠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 32: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출 32: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 32:17)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출 32:18)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출 32: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 32:20)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출 32: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출 32:22)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출 32: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출 32: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 32: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출 32: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출 32: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출 32: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출 32: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는 악한 일에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연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언대로라면 대제사장은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 7:1)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히 7:2)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 7:3)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 7:4)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히 7:5)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히 7:6)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히 7:7)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뵈을 받느니라

(히 7:8)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히 7:9)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히 7:10)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지파가 아직 나기도 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오신 것입니다.

죽으면 계속 바뀌어야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음은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유다는 형들에게 주는 예언을 들으며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도 과거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데 주동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비와 형제들을 떠나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으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 그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의외의 예언을 받습니다.

(창 49: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는 통치권을 발휘할 것이며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인데 이 장자의 축복이 넷째인 유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통치권과 두 배의 유산, 이 두 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장자의 두 권리 중 가족을 이끄는 통치권은 유다에게, 두 배의 유산은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구하려고 했던 유다의 형제애와 희생적인 책임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도 주어집니다.

(창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 49:10)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자, 흠, 치리자의 지팡이 등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유다의 족속에서 왕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유다 지파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의 예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 49: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창 49:12)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라고 합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다니요?

포도를 수확하여 발로 밟아서 즙을 짜다 보니 옷이 붉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 19:12)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 19: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 19: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 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야곱이 준 이 예언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